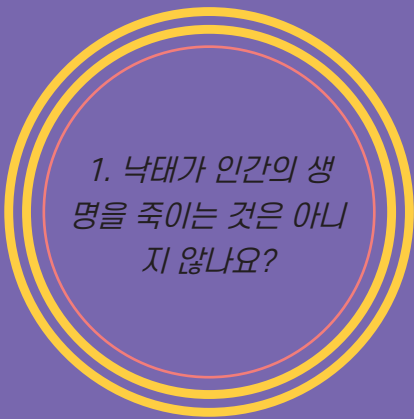




낙태에 관한 10가지 질문¹

¹ 이하는 Ingrid Skop 미국 산부인과 의사가 2018년 4월 23일에 Family Research Council에 기고한 칼럼 "Top 10 Myths about Abortion"을 요약 번역하였음.



1. 낙태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니
지 않나요?

태아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아'라는 용어는 의학용어로서 자궁에서 태어나기 전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태아를 살아있다고 봐야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아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은 성교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면서 엄마와 아빠의 염색체 물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배아가 형성됩니다. 수정 후 약 5일에서 7일 후에 착상이 이루어지며, 이때부터 배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수정 후 21일이 되면 심장이 뛰고, 혈액을 펌프질하기 시작하고, 30일이 되면 팔, 다리, 뇌가 형성되며, 35일이 되면 입, 코, 귀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임신 6주가 지나면, 골격과 장기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8주가 되면 손이 만들어지고 지문이 형성됩니다. 9주차에 손톱이 만들어지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가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주가 지나면, 태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삼키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12주가 되면 미소를 짓고, 손과 발의 복잡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태아의 모든 장기가 완성됩니다. 태아는 엄마와 분리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부터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능력은 마지막 생리기간에 근거하여 약 22주, 즉 임신 20주후부터 발생합니다.

이러한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태아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태아의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태아와 유아는 하나의 인간 발전의 순차적 단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아와 유아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어떤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지를 판단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키가 작은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의 차이일까요? 많은 어린이들이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성인들은 복잡한 정신적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성인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측정기준이 특정한 정신적 또는 발달적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태아에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생명의 기간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24주간 원하지 않는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권이 없는 반면에, 24주보다 이르게 태어난 조숙아의 경우 생명권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600그램의 두 명의 아기 중 한 아기는 임신부의 자궁에서 절단되어 찢어지고, 다른 한 아기는 최신 기술을 통해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아기의 차이는 단지 전자의 경우 부모가 아기를 원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 부모가 아기를 원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모체에 대한 의존성의 문제일까요? 타인에 대한 의존은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 당뇨병이나 신부전 환자,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들 또한 타인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생명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회 정의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취약한 인간집단인 태아를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까요?

2. 낙태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가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Roe v. Wade 사건을 통해 낙태를 합법화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 왜 생명으로서 다루어질 자격이 없는지와 헌법에서 여성에게 태아의 생명을 종료시킬 권리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언제 생명이 시작되는지는 무시하고, 법인격(法人格)에 근거하여 생명의 자격을 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법인격'에 근거한 낙태에 대한 논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아직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태아가 법인격을 갖춘 사람보다 가치가 낮으며, 법인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격을 사람이 아닌 동물에까지 확장시키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넌휴먼 라이츠 프로젝트(The Nonhuman Rights Project)는 새우, 코끼리, 돌고래, 고래 등의 법인격을 주장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만약 법인격이라는 용어가 영리한 동물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지만, 태아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면 법인격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 자체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출생하여 첫 숨을 쉬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는 1973년 대법원에서 사용된 법인격의 정의였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자각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이나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거나, 치매에 걸리는 경우 자각력을 잃게 됩니다.

임신 중 특정한 문턱에서 법인격을 지정하는 것의 명백한 문제점은 그 지정이 임의적인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태아가 출생 전에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태아 발달의 연속적인 변화에서, 어떻게 태아가 어느 시점에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3. 낙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낙태가 종교적인 문제라는 주장이 자주 제기

되고 있고, 미국 연방 수정헌법은 제1조 국교 부인조항에서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 관련 입법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동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낙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낙태가 유대·기독교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도덕의 문제로 여겨질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생명을 가진 하나의 인간인가요? 우리는 태아가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분명한 증거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도덕적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이어야 할까요?

비록 성경과 율법/탈무드에서 구체적으로 ‘낙태’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라는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에 입각하여 낙태를 도덕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예레미야 1:27).”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편 139:13-16).”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낙태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종교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종교단체들은 평등과 정의의 문제로서 출산에 관한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논쟁의 양측에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이 모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낙태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매년 많은 낙태가 행해지고 있지만, 그 중 1~3%만이 강간, 근친상간, 태아의 심각한 기형, 산모의 생명의 위협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나머지 97%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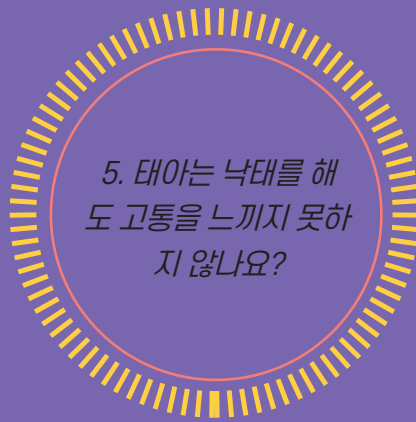
제적인 또는 감정적인 부담 또는 다른 확실하지 않은 이유들로 낙태가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었을 때 낙태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없다면 낙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 25~30%의 여성들이 낙태를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낙태를 한 여성의 절반은 피임을 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나머지 절반의 여성들이 임신을 예방하지 못한 피임법을 사용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임을 사용한 첫해에는 십대의 16%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임은 종종 실패하는데, 이로 인해 낙태의 43%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임신 후기의 낙태는 엄마의 생명을 위 하여 또는 태아의 심각한 기형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임신 후기의 낙태는 미국 전체 낙태에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년 잠재적으로 생존 가능한 15,000명에서 18,000명 아 기들이 임신 20주 이후에 낙태가 된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낙태된 대부분의 아기들은 건 강한 산모의 건강한 아기들입니다. 일부 여성 들은 임신한 것이 확실해졌을 때 낙태하는 것 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한 연 구결과에 따르면, 낙태를 한 여성의 58%는 그들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였 다고 느꼈고, 그 중 28%는 그들의 파트너가

낙태를 하지 않으면 떠날 것이 두려워서 낙태 를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연 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임신 후기 낙태가 선 택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3%의 낙태는 임신 3 개월 후에 이루어지며, 6.2%는 13주에서 15 주 사이, 4%는 16주차 또는 그 후에 이루어 지는데, 낙태의 이유에 대해서는 임신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낙태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었거나, 파트너가 낙태에 반대했기 때문 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임신한 지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낙태를 한 여성 의 50%가 우유부단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 고, 33%는 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망설임 때 문에, 낙태를 하고난 후 여성에게 또 다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선택을 후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임신 후기의 낙태가 산 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만,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사람들 이 생각하는 것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궁 외 임신의 경우, 필연적으로 유산 이 될 것이며, 나팔관과 같은 위치에서 태아 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개입은 항상 임신 초기 에 이루어지므로, 의사들은 이를 낙태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임신 후반기의 개입은 조기분 만이라 부르며, 이러한 경우 분만 목적은 선 택적 낙태에서처럼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 라 산모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거나 적어도 그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등을 통해 가능하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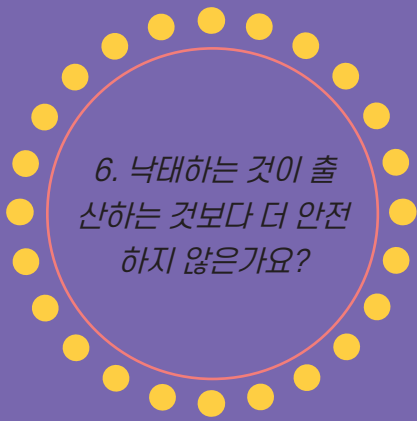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임신 후기 낙태는 '부분출산낙태' 또는 '해산낙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부분출산낙태는 먼저 낙태하기 1일에서 3일 전에 자궁경부확장제를 투여하여 자궁 경부를 확장시킨 다음 자궁에 있는 태아의 발을 꼬집어낸 후, 순차적으로 다리, 몸통, 팔을 꼬집어낸 후 두개골을 꼬집어내기 전에 두개골 밑 부분에 가위를 집어넣어 구멍을 만들어 뇌를 흡입하여 제거하고 두개골은 집게로 부순 다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해산낙태는 두개골을 부수고 제거하기 전에 다리와 팔, 몸통 부분을 먼저 태어냄으로써 태아를 점진적으로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언제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

을까요? 태아가 고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피부 감각 수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태아의 감각 신경은 임신 7주후부터 입 주변을 시작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며, 11주차에 손바닥과 발바닥, 15주차에는 몸통과 팔다리, 20주차에는 온몸에 존재하게 됩니다. 감각 신경 세포가 발달함에 따라 태아는 촉각에 반응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초기의 통증 체계는 상대적으로 원시적입니다. 그 후 말초신경에서 뇌로 이어지는 중추신경계 부분은 13주차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14주에서 20주 사이에 중뇌와 연결됩니다. 임신 중반기의 초기에 태아는 성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에 움찔함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고통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기능을 하는 대뇌피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일부 문헌은 고통의 감정적 처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능하는 탈하부만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뇌수두증을 가진 아기들은 정상적인 아기들이 고통스러운 자극에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해 모든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정상적인 대뇌피질 기능을 가진 아기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특성을 보이는 아기라도 수개월이 지나서 무뇌수두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출산 전에 그러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기들은 깨어있고 기민해 보이고, 주위 환경에 대한 반응성을 보이며, 미소를 짓고 웃음으로써 즐거움을 표현하고, 소란을 피우고 울면서 싫은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아기들은 낯선 사람에 비해 그들에게 익

숙한 사람들의 얼굴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뇌가 어떻게 감정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과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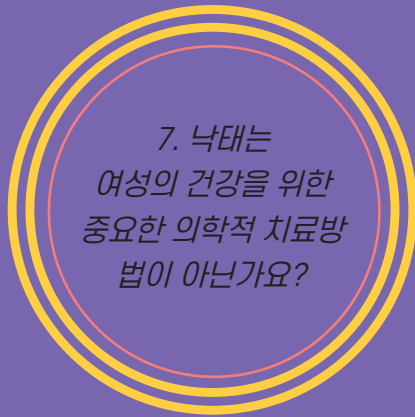
낙태 합법화 이전에는 1년에 98,000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졌고,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는 연간 100만건에서 150만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보고가 정확하다면, 낙태의 실패로 인해 임신부가 사망하는 경우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낙태로 임신부가 사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모든 낙태과정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질출혈, 복부 내 출혈,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궁 내막염, 자궁 또는 다른 골반 또는 복부의 손상, 마취 과량 투여, 혈전 색전증, 심장 또는 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유도된 낙태의 즉각적인 신체적 합병증의 발생률은 11%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의 안전성은 낙태가 합법인지의 여부보다 낙태에 이

용 가능한 기술, 낙태를 하는 임신부의 연령, 시술자의 기술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낙태와 관련된 안전성에 대해 이와 같은 신체적 합병증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임신부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신적 합병증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포괄적인 연구는 낙태의 정신 건강의 영향을 고려한 22개의 연구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낙태 후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이 전반적으로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4%의 불안 증가, 37%의 우울증 증가, 110%의 알코올 남용 증가, 230%의 마리화나 남용 증가, 155%의 자살 행위 증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대책본부는 텍사스주에서 임신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약물 과다 복용이 두 번째로 많았고, 살인과 자살도 7대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신 초기의 낙태는 임신 후기의 낙태보다 임신부에게 덜 위험합니다. 이는 임신부의 자궁이 자라면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전체 사망률이 0.7/10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수치는 임신 후기 낙태 수술의 경우 6.7/10,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망 위험이 8주를 넘어 매주 38%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초기 낙태와 비교하면 상대적 사망 위험은 13-15주가 14.7배(1.7명 사망/100,000건 낙태), 16-20주가 29.5배(3.4명 사망/100,000건

낙태) 높았고, 21주 이후는 76.6배(등급 8.9명 사망/100,000건 낙태)나 높았습니다.



7.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의학적 치료방
법이 아닌가요?

임신은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이지, 질병에 걸린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치료는 아닙니다. 이는 단지 사회적 문제를 수술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여성과 그녀의 의사간에 결정할 문제이다”라는 말은 낙태가 의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낙태는 여성의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는 잘못된 추정을 하게 합니다. 미국 산부인과 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협회원의 97%가 낙태를 요청하는 환자를 경험했지만, 단지 14%만이 낙태를 시행했습니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찬성(pro-choice)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낙태 수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손을 더럽히기 원하는 자는 매우 적다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태아를 돌보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건강한 태아를 죽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불협화를 겪으려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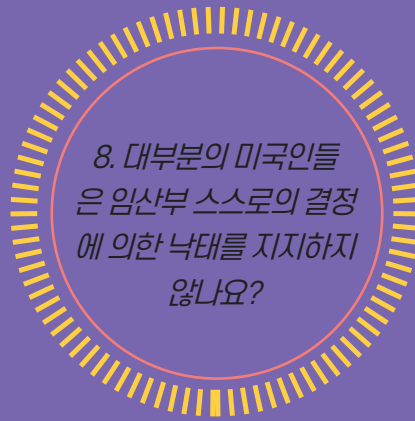
거의 대부분의 낙태 수술가들은 낙태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고, 낙태 수술만이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수술을 하는 기술자들에 불과합니다. 일이 많은 낙태 클리닉에서는 직원이 여성과 상담을 통해 낙태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낙태 수술가들은 수술 대상 여성과 아무 말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종종 인체 내부 검사용 검경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서,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가 여성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여성 환자가 그녀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의사는 단지 그 결정을 이행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플랜드 패어런트후드(가족계획연맹)라는 미국 낙태 단체는 2014년~2015년 회계연도 1년 동안에 미국 전체 낙태 건수 926,200건 중 35%에 해당하는 323,999건을 시행했습니다. 2016~2017 회계연도에는 1년 동안 321,384건의 낙태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낙태 이외의 다른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자랑을 하지만, 이는 낙태 수술을 받으러 간 여성이 수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다른 부수적인 검사들-임신 검사, 초음파 검사, 성병 검사, 자궁암 검사와 사후 피임 진료-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낙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단체를 방문합니다. 이 단체가 행하는 321,384건의 낙태 수술이 281,063건의 자궁암 검사 보다 더 많은 것이 실제입니다. 이를 보면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이 낙태를 하기

위험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플랜드 패어런트후드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3억 6천만 달러(약 1조 5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중 8억2천2백만 달러를 의료행위에, 그리고 4천7백9십만 달러를 성교육에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9천8백2십만 달러를 공공정책, 시민단체, 보건 차별금지 증진, 단체 역량 강화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 단체의 정치적 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고, 이 단체가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와 기부를 통해 단체의 이익을 증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이 단체는 5억4천3백7십만 달러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았고, 5억2천3천7십만 달러의 기부금을 개인과 민간단체로부터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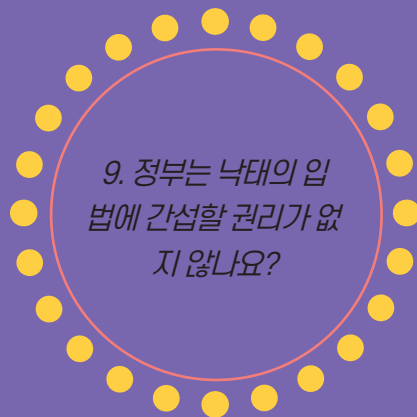
플랜드 패어런트후드와 달리, 페더럴리 퀄러파이드 헬스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라는 의료기관은 낙태를 제외하고 플랜드 패어런트후드가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고 있으며, 유방암 검사, 당뇨병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이비인후과, 치과, 예방의학과, 소아과, 의학 영양 치료, 관절·골 관련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 남용 진료, 응급의학과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기관은 여성을 진료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상황에서 낙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낙태 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오직 29%의 미국인들만이 현재 법이 허용한 것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낙태가 합법화 된 이후 낙태에 대한 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일관되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1975년 54%, 현재 50%),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는 합법이어야 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이보다 낮으며 (1975년 22%, 현재 29%), 심지어 모든 상황에서 낙태가 불법이 되기를 원하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975년 21%, 현재 18%). 산모의 생명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우와 아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이 심각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반면에,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단지 36%에 불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24시간의 대기시간, 부모의 동의, 배우자 통지, 관련 정보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후의 동의, 대안적 상담, 사전 초음파 검사, 부분적 출산 낙태 금지 등과 같은 제한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임신 3개월이 후에 대한 낙태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갤럽의 지난 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임신 중반기에 낙태하는 것을 불법화하기를 원했고, 응답자의 80%가 임신후기에 낙태하는 것을 불법화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2017년 Pew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임신 후기에 대한 낙태를 제한하는 것을 원했으며, Marist 여론조사에 따르면 82%의 여성응답자가 낙태를 임신 3개월까지로 제한할 것을 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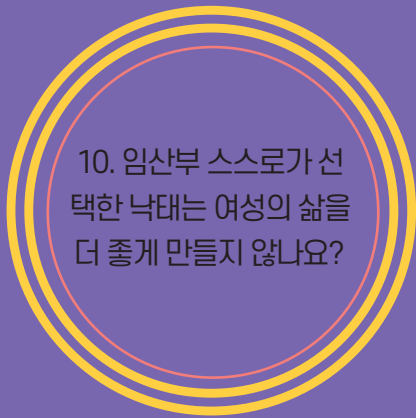


정부가 낙태절차와 관련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합니다. 정부의 첫

번째 목적은 시민들의 안전을 포함한 그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사적이며 정부의 능력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는 낙태가 임신부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인간의 살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안전한' 낙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적어도 정부는 낙태시술자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끔 해야 하고, 낙태 시설들이 깨끗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할 준비가 되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들이 낙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여성들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이 낙태 이외에 선택가능한 다른 모든 사항들에 대한 이점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법제화할 수 없다.”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일 때 도덕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살인, 강간, 폭행 제한, 마약, 매춘, 도박 금지 심지어 교통관련 규제들 모두 일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합니

다. 여성이 행복을 추구하기로 선택하는 방법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만,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시민, 즉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정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0. 임신부 스스로가 선택한 낙태는 여성의 삶을 더 좋게 만들지 않나요?

지난 45년 동안 미국에서 6천만 명의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 낙태로 인해 강제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낙태가 여성이 태아의 생명을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여성 스스로의 몸과 미래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여성의 삶을 향상시켰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낙태가 지난 45년 동안 여성의 삶을 향상시켰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합법화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했을 문제들이 실제로는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법률 및 주 법률들과 사법적인 해석들은

수 년 동안 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였고, 고용권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임과 낙태의 합법화는 오히려 결혼 이외의 성행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으로써 성병 감염, 원하지 않는 임신, 미혼모의 비율, 아동학대의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피임과 낙태의 합법화는 1960년대 '성혁명' 이후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증가시켰습니다. 결혼 외의 성관계 증가는 원하지 않는 임신가능성과 성병 감염률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미혼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의 수는 지난 45년 동안 증가해왔으며, 한 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이들은 단기적, 장기적,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을 모두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대들의 낙태율은 4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많은 여성들이 산아제한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낙태를 하는 비율은 세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아이들의 출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동학대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 아동학대는 지난 45년간 17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청소년 범죄율도 높아졌으며, 유아 살해율도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여성의 자궁 안에서 아기의 생명을 무시하게 되면서 여성의 자궁 밖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도 무시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은 낙태를 통해 외도, 근친상간 또는 성매매를 포함한 불법적인 성행위를 숨길 수 있게 되어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낙태 후 여성들에 대한 조사에서

58%의 응답자들이 “남을 행복하게하기 위해서 낙태를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28%의 응답자들이 “낙태를 할 때 이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한 후에는 남자는 더 이상 그의 아기와 여자를 부양하는 데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낙태 규제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정부가 낙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소수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후원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페미니스트 Mathewes-Green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 때문에, 여성들은 낙태를 원하는가? 밧에 걸린 동물처럼, 자신의 다리를 갇아먹으려 하는 낙태를 추구하는 여성은 폭력과 자기 상실 행위로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낙태는 여성이 자유롭다는 표시가 아니라 절망적이라는 표시이다.”라고 말했습니다.